

광주서도 가전·자동차 전장부품 전자파 원스톱 시험인증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호남 유일 현대·기아차 공식 인증기관 지정 지역업체 수개월 대기 어려움 해소...미래차 등 산업 경쟁력 확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현대차·기아 자동차 공식 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가전·전력기기부터 자동차 전장 부품제품까지 전자파 시험·인증이 '원스톱'으로 지원됨에 따라 지역 기업의 신제품·신기술 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등 호남지역 미래차 산업 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4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원장 신희동)에 따르면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원광호)는 최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로부터 자동차 전장부품 관련 전자파적합성(EMC, 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공식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 현대차·기아의 전자파적합성 인증 프로그램은 전자파 신뢰성 검증체계를 구축한 외부 우수 전문 시험기관을 선정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관련 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현대차·기아의 협력사(부품 제조)는 반드시 전문시험기관에서 관련 시험을 실시·통과해야 한다.

KETI 광주지역본부가 현대차·기아의 자동차

전장 분야에 있어 호남권 유일의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호남지역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업체들은 전자파 성능시험을 지체 없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호남지역 업체들은 전자파 성능 시험을 받기 위해 수도권 등 타 지역에 있는 시험인증기관을 방문해 길게는 수개월씩 대기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현대차·기아는 2015년부터 공식시험기관에서 발급된 성적서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광주 등을 제외한 전국에 총 15개의 시험기관만 등록돼 있었다. 현대차·기아는 공식시험기관제 도입 9년여 만인 올해 KETI를 포함해 3개 기관을 추가 선정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광주지역본부는 최근 대용량 전기차의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식시험기관 지정으로 전력기기 및 자동차용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이 모두 가능하게 됨에 따라 호남권 기업 제품에 대한 신속한 기술 지원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KETI 광주지역본부가 주관기관으로 2017년 북구 첨단지구 내에 개소한 DC전기전자산업육성센터(KOLAS 국제공인 시험기관)에서는 고압 대용량 전원설비 등 첨단 인프라를 활용한 소형, 대용량 산업용, 전력용 및 자동차 관련 전자 제품의 성능 시험·측정·분석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체계도 갖출 수 있게 됐다.

DC전기전자산업육성센터에서는 그동안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LVDC(Low Voltage DC) 기기 및 대용량 송전에 사용하는 HVDC(High Voltage DC) 기기 등의 시험을 진행해 왔으며, 배전망에 사용되는 MVDC(Medium Voltage DC) 기기의 시험·인증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KETI 광주지역본부 원광호 본부장은 "이번 현대차·기아 EMC 인증시험기관 지정을 통해 친환경 전기차(EV) 및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장 진입을 앞둔 지역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중소·중견 기업의 판로 개척 등에도 힘을 보탬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DC전기전자산업육성센터는 향후 직류기기를 중심으로 가전·전력기기 산업과 더불어 자동차 전장부품 산업에서도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북구 첨단지구 내에 있는 KETI 광주지역본부 주관 DC전기전자산업육성센터(KOLAS 국제공인 시험기관)에서 한 연구원이 자동차 램프 GSM·무전기 주파수 내성 시험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정책 발굴·의정 역량 강화 논의

정책네트워크 세미나

광주시의회는 24일 '제9대 의회 전반기 정책네트워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1년 여간의 정책네트워크 분야별 정책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의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향후 발전적 대안 마련과 정책 과제 발굴 및 반영을 통해 의정역량 극대화 및 앞으로 정책네트워크 기능 확대와 위상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세미나에는 정무장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학계

및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각 분야에서 추천된 정책네트워크 위원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1년 간 다양한 분야별 주요 정책 연구 성과인 ▲의회운영분과의 'Y-프로젝트 발전 방향' 등 4건 ▲행정자치분과의 '광주·전남 연구원 분리 및 운영 효율화 방안' 등 5건 ▲환경복지분과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제제와 지자체의 역할' 등 6건 ▲산업건설분과에서는 '광주 역사와 도시재생' 등 4건 ▲교육문화분과는 '학생인권 옹호관 제도 도입' 등 6건을 발표하고 정책 의제를 공유했다.

정무장 의장은 "의회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정책네트워크 위원님들의 시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연구·지문 활동이 지역 공동체의 공익에 부합되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졌다"면서 "예산 심의와 집행부 견제·감시 등 지방의회에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 현안에 지역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 연구·자문기구인 '광주광역시의회 정책네트워크'는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와 자문 기구로 출범해 운영 중이다. 주요 정책 연구·자문 및 조례 제정,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총선 브리핑

안도걸 "지방교부세 감액 책임 지자체에 떠넘겨"

안도걸 경제연구소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예측을 잘못 해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대규모 지방교부세 감액이 발생했음에도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재원이 줄어든 지자체들이 각종 사업을 축소하거나 경감비 감액, 신규사업 전면 중단 등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지역경제가 돈가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올해 국제 수입은 경기 불황으로 당초 예상보다 59조 1000억원이나 감소하고, 이



로 인해 국내 전체 지방교부세도 11조 9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근본적 대책 없이 지자체가 용재원을 활용하고 지출 구조 조정을 하는 등 알아서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안도걸 이사장은 "확장 재정운용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강수훈 시의원 "맥쿼리 위한 가스요금 인상 안돼"

광주시가 최근 도시가스 공급 비용 인상 검토와 관련해 해양에너지를 인수한 맥쿼리를 위한 요금 인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수훈 광주시의원(민주·서구1)은 24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황제 배당"을 하며 돈잔치를 벌인 맥쿼리가 이제는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비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따르면 해양에너지 배당금은 2021년 까지 매년 120억원 규모였지만, 맥쿼리의 지분 인수 후 2022년에는 320억원으로 급증했다.

강 의원은 "해양에너지 지난해 당기 순이익은 195억원, 영업이익은 234억원인데, 이 보다 많은



배당금을 지급한 것은 '황제 배당'이라고 지적한 뒤 "이는 맥쿼리가 해양에너지의 이익과 별개로 인수 당시 약속한 배당금을 받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삶의 필수재인 에너지 통제권을 맥쿼리같은 기업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강기정 시장은 민간 자본의 공공요금 인상 요구를 이겨내고 동료 의원들 역시 도시가스 요금 의견 청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우수 제품 구입하고 장애인 자립 돕고

내일 광주시청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박람회

광주시와 광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26일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202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홍보·판매 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는 지역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박람회에선 28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생산한 가공식품, 생활용품, 공예품 등 40여개의 제품을 전시·판매하며, 시민이 직접 맛보고 사용한 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먹거리 시식 부스와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직업능력이 낮거나 이동

및 접근성,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재활훈련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경쟁적 고용시장으로 옮겨가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에는 9월 말 현재 30개 시설에서 870여 명의 장애인이 직업재활훈련 및 일터에 참여하고 있다.

각 참여시설에서 판매하는 김치·참기름·과자·빵·커피·수제청 등 식품, 천연비누·세제·수건·가방·생활자기 등 생활품, 공예품을 현장에서 직접 맛보고 체험한 후 바로 구매하거나 선주문 후 배송도 받을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환경공단 이사장 김병수씨 내정

광주환경공단 새 이사장에 광주시 대변인을 지낸 김병수 씨가 내정됐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환경공단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복수 후보 가운데 김씨를 최종 후보자로 내정했다. 광주시는 다음 달 17일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김씨를 임명할 방침이다.

대변인, 교통과장, 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 홍보부장, 동구 부구청장 등 행정 전반에 걸친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조직을 잘 관리할 책임자로 판단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김씨는 지방선거 당시 강기정 시장 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판 (TMS-600+)
- 판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요별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제조사 표창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